

문 42. 십계명의 대 강령이 무엇인가?

답 42: 십계명의 대 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 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라 하신 것이다.

마태복음 22:37-40

추가질문 1: 십계명이 사랑의 대 강령이라고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있었다면 십계명을 대할때에 친근감이있는가?

추가질문 2: 십계명의 대상은 누구인가?

추가질문 3: 십계명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추가질문 4: 십계명이 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추가질문 5: 십계명중에 제 4 계명은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요? 제 4 계명의 요구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추가질문 6: 십계명중에 제 5 계명은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요? 제 5 계명의 요구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추가질문 7: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설명:

일반적으로 십계명과 사랑을 연결시켜 생각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몇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십계명은 구약적인 율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구약의 법이 유효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 또는 잘못된 성경적 견해나 신학에 젖어있기 때문이다. 둘째, 십계명은 딱딱하게 느껴진다. 그러므로 딱딱한 것이 따뜻한 사랑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 셋째, 십계명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십계명을 다외울줄은 알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외곡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자신에게 맞도록, 또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방편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십계명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0:1-2) 이 내용은 분명히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주어진 법이다. 모든 사람이 이 법대로 살아갈 수 없기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제 1 계명부터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십계명을 잘 살펴보면 하라는 것과 하지말라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계명이 하지 말라라고 되어있다. 제 4 계명과 제 5 계명만 예외이다. 하지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왜 어떤 것은 하지 않아야 하며 어떤것은 해야되는 것인가?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며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인가? 그 외의 다른 모든 8 개의 계명들을 하지 말라라고 되어있다.

제 4 계명과 제 5 계명에 대해서 앞으로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본문을 보면 이 2 개의 계명과 나머지 8 개의 계명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간단하게 설명해서 제 4, 5 계명은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함께한 계명들이다. 이런점에 있어서 제 4, 5 계명은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물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벌이 있을 것이다. (참조: 신명기 28 장)
그러나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